



독일에서 제26회 세계남자핸드볼선수권에 참가하는 남북 단일팀이 현지 클럽팀과 연습 경기에 앞서 기합을 다지고 있다.

/연합뉴스

# 남자핸드볼 남북단일팀 '역사를 만든다'

세계선수권 11일 독일서 개막  
국제대회 첫 단일팀 출전  
세계 1·4·5위 포진 '죽음의 조'  
"남북 한마음 멋진 경기 하겠다"

지난해 경기도 수원에서 열린 아시아선수권대회 3위 자격으로 올해 세계선수권 출전 자격을 6년 만에 획득한 한국은 지난해 북한과 단일팀 구성에 합의하고 이번 대회를 준비했다. 조영신(상무) 감독이 지휘봉을 잡은 남북 단일팀은 남측 선수 16명에 북측 선수 4명이 합류해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조별 리그 장소인 독일 베를린에서 합동 훈련을 시작했다. 이번 대회에 출전하는 다른 나라들은 엔트리가 16명으로 제한되지만 남북 단일팀에 한해 국제핸드볼연맹(IHF)이 20명으로 늘릴 수 있도록 했다. 북한 성인 남자 핸드볼은 최근 국제무대에 나온 적이 거의 없지만 우리나라 주니어 선수들 정도의 기량을 가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단일팀은 11일 오전 2시 15분 개최국 독일과 공식 개막전을 치를 예정이라 독일 현지에서도 큰 주목을 받고 있다.

4일 진행된 미디어 공개훈련에는 독일 공영방송 ARD와 ZDF, 일간지 쥐트도이체라이퉁과 빌트 등 20여개 매체가 취재 경쟁을 벌였다. 쥐트도이체라이퉁은 7일 '정치적인 꿈보다 앞선'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처음으로 다시 남북 단일팀이 세계대회에 출전하게 돼 정치적인 상황보다 스포츠 분야에서 먼저 진전을 이뤘다"면서 "이는 쉽지 않은 시도이자 실험"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현지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지만 단일팀의 조 편성이 '죽음의 조'라고 부르기도 부족할 만큼 대진운이 따르지 않아 좋은 성적을 내기는 쉽지 않다. A조에 편성된 단일팀은 세계 랭킹 1위이자 개최국 독일과 첫 경기를 치르는 것을 시작으로 러시아(4위), 프랑스(5위), 세르비아(6위), 브라질(27위)과 차례로 맞붙는다. 북한은 세계 랭킹이 없고, 한국은 19위

다. 브라질이 우리보다 세계 랭킹이 낮지만 브라질은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8강까지 오르는 등 쉽지 않은 상대다. 그래서인지 IHF는 최근 이번 대회 참가국을 소개하면서 남북 단일팀에 대해 '스포츠클럽 그 이상의 역사를 만든다'는 슬로건을 붙여줬다. 승패보다는 남북 화합의 역사적 의미가 더 크다는 취지로 보인다. 5일과 7일 현지 클럽팀과 연습 경기로 실전 감각을 조율한 조영신 감독은 4일 공개훈련 인터뷰를 통해 "항해 훈련하는 기간이 짧지만, 단일팀 선수들이 한마음 한 뜻으로 대회를 준비하고 있어 경기 최선을 다해 멋진 경기를 보여드리겠다"며 "남북 선수가 같이 뛰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남북 단일팀과 독일의 개막전에는 주독정범구 한국대사와 박남영 북한대사가 참석하고, 남북이 공동응원전을 펼칠 예정이다. /연합뉴스

## 메이저리그 관중 감소에도 16년 연속 수입 신기록

지난해 11조5154억원 벌어들였다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가 2018년 관중 감소에도 16년 연속 연간 수입 신기록을 세웠다. 8일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에 따르면, 메이저리그가 2018년에 벌어들인 야구 관련 수입은 103억 달러(약 11조5154억원)로 추산됐다.

메이저리그는 2년 연속 연간 수입 100억 달러를 돌파하는 등 16년 연속 수입 증가를 기록했다. 다만, 증가 속도는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돌파한 2017년과 비교해 다소 둔화했다. 기상 악화 등으로 전체 관중이 4%나 감소해 2003년 이래 15년 만에 최소치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메이저리그 정규리그 총관중은

6967만명에 그쳐 7000만 명 밑으로 내려갔다. 그런데도 수입 증가세를 유지할 수 있던 TV 중계권료와 후원 계약 수입이 많이 증가한 덕분이다. 미국 지상파 방송 폭스는 메이저리그와 중계권 계약을 연장해 2022년부터 2028년까지 7년간 중계권료로 무려 51억 달러를 주기로 했다. 스포츠전문 채널 ESPN과 TBS도 MLB 사무국과 중계권 협상을 진행 중이어서 앞으로도 MLB 중계권 수입은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메이저리그 산업화를 이끈 버드 셀리그 전 MLB 커미셔너가 취임한 1992년의 메이저리그 연간 수입은 12억 달러에 불과했다. 이후 26년간 메이저리그는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해 인플레이션을 고려할 때 377%의 성장률을 찍었다. 수입 증가와 달리 메이저리그 구단의 지난해 연봉 지출액은 45억4800만 달러로 2017년보다 1억1500만 달러나 줄었다. 이는 2004년(2억 달러) 이래 가장 큰 감소 폭이었다. /연합뉴스

## PGA 소니오픈 "코리안 파워 보여주마"

11일 개막...양용은·배상문·김시우·임성재 등 출전

양용은과 배상문, 김시우, 임성재 등 한국 선수들이 11일 개막하는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소니오픈(총상금 640만 달러)에 출전한다. 미국 하와이주 호놀룰루의 와이알래이 컨트리클럽(파70·744야드)에서 11일부터 나흘간 진행되는 소니오픈은 7일 끝난 센트리 챔피언스 토너먼트에 이어 2019년 두 번째로 열리는 대회다. 그러나 센트리 챔피언스 토너먼트는 지난 시즌 우승자 30여명만 출전할 수 있는 대회여서 한국 선수들은 한 명도 나가진 못했다. 재미교포 케빈 나와 마이클 김이 출전할 예정이었다가 케빈 나가 손가락 부상으로 기권하는 바람에 마이클 김만 공동 32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이 대회는 144명이 출전하는 대회여서 한국 선수들이 새해 처음으로 투어 대회에 모습을 나타낸다. 지난해 9월 2부 투어인 웨트컴 투어 대회에서 우승, 이번 시즌 풀 시드를 확보한 배상문도 새해 첫 대회에 출전한다. /연합뉴스



양용은 임성재

이번 시즌 신인상 후보로 거론되는 임성재와 2017년 플레이어스 챔피언십 우승자 김시우를 비롯해 강성훈, 김민휘, 이경훈 등이 이번 대회에 출전한다. 교포 선수로는 케빈 나와 마이클 김 외에도 제임스 한, 존 허(이상 미국), 대니 리(뉴질랜드)가 나온다. 특히 제임스 한은 지난해 이 대회에서 연장전 끝에 패트 키자이어(미국)에게 패해 준우승한 아쉬움을 올리는 탈어널 테세다. 지난해 11월 결혼한 이후 처음 PGA 투어 대회에 출전하는 조던 스피스(미국)도 반가운 얼굴이다. 2015년 5승, 2016년 2승, 2017년 3승 등으로 순항하던 스피스는 2017년 7월 브리티시오픈 이후 우승 소식이 없어 올해를 버리고 있다. 제스틴 토머스(미국)는 지난해 센트리 챔피언스 토너먼트 3위에 이어 이번 대회에서는 2017년 이후 2년 만에 패권 탈환에 도전한다. /연합뉴스

## 이젠 '키움 히어로즈'...15일 공식 출범식

프로야구 히어로즈 구단이 다음 주 출범식을 통해 새 메인 스폰서인 키움증권과의 동행을 시작한다. 히어로즈 구단은 오는 15일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에서 키움증권과 함께 키움 히어로즈 출범식을 한다고 8일 밝혔다. 키움 히어로즈는 출범식 행사명을 'New Heroes Kiwoom Heroes'로 칭함과 동시에 이를 올 시즌 구단이 사용할 슬로건으로 결정했다. 키움 히어로즈가 공식적으로 첫발을 내딛는 이 자리에는 임직원과 선수단 등 약 2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는 출범 기념 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브랜드이미지(BI) 및 유니폼 공개, 선수단 각오 발표, 신규 응원가 공개, 치어리더 축하공연 등이 진행된다. 올 시즌부터 새롭게 적용하게 되는 유니폼은 박병호, 서건창, 김하성, 최원태,

이정후 등 히어로즈 구단 소속 선수들이 직접 입고 나와 첫선을 보일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2008년 창단 이후 지난 10년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착실히 준비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영상 상영으로 행사가 마무리된다.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넥센'이라는 이름으로 리그에 참여했던 히어로즈의 팀 명칭은 올해부터 '키움'으로 바뀌었다. 히어로즈 구단은 지난해 11월 6일 키움증권과 메인 스폰서십 계약을 체결했다. 양사가 체결한 계약 내용에 따라 키움증권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히어로즈의 메인스폰서로서 명명권(네이밍 라이츠)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메인 스폰서십 비용은 연간 약 100억원 규모다. 이에 따라 넥센 히어로즈는 2018년을 끝으로 프로야구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연합뉴스

### 산행안내

1월 12일(토)  
▲광주호산회 1월 12일(토) 군산 구불길코스 비단강길, 07:30 풍암동 롯데마트 7주차장출발, 08:00 롯데백화점, 08:15 예술회관후문 \*다음카페 광주호산회 ☎ 010 4621 2166, 010 6702 9796

1월 13일(일)  
▲광주산가족산악회 1월 13일(일) 여수 봉화산 금오산 산행, 07:30 대인광장 07:50, 동광주출 08:00 \*다음카페 광주산가족산악회 ☎ 010 6886 9106

▲광주산사모산악회 1월 13일(일) 경남 함양 지리산 천왕봉, 07:30 모아레포즈 입구 06:20, 상무 무각사

06:30, 광주시의회 06:35, 운남 21세기병원 06:45, 수완 지하도 위 승강장 06:50, 비엔날레 주차장 07:00, 문예회관 후문 07:10 \*다음카페 광주산사모산악회 ☎ 010 3603 8370, 010 3606 8081

▲광주자연보전단사회 1월 13일(일) 대전 계룡산(845m), 영주체육관 06:40, 무등경기장 07:00, 동광주출플러스 07:20 \*다음카페 광주자연보전단사회 ☎ 010 3666 3291, 010 2663 0304

1월 16일(수)  
▲광주청목산악회 1월 16일(수) 전남 완도 상항봉(644m), 백운로타리타이어뱅크앞 07:50, 교직원공제회관 08:00, 예술회관후문 08:10, 동광주진입로승강장 08:20 \*다음카페 광주청목산악회 ☎ 010 8612 4504, 010 3000 1134

1월 19일(토)  
▲광주호산회 1월 19일(토) 진도 금골산, 07:30 풍암동 롯데마트 7주차장출발, 08:00 롯데백화점, 08:15 예술회관후문 \*다음카페 광주호산회 ☎ 010 4621 2166, 010 6702 9796

▲광주금당산악회 1월 19일(토) 거창 남덕유산(1,507m)-삿갓봉(1,410m) 산행, 봉선동 롯데마트 앞 07:10, 진월동 식자재마트 앞 07:20, 영주체육관 07:30, 한국병원앞 07:40, 문예회관 후문 07:50, 비엔날레 주차장 입구 08:00 \*다음카페 광주금당산악회 ☎ 010 6294 2678

1월 20일(일)  
▲한길산악회 1월 20일(일) 강원 태백산 눈꽃 산행, 상무정 04:00 무각사 04:10 광주역 04:20 동광주출 04:30 비엔날레 04:40 \*다음카페 한길산악회 ☎ 010 4602 3230

1월 23일(수)  
▲광주청목산악회 1월 23일(수) 경남 사천 비토드 트레킹(약 9km), 백운로타리타이어뱅크앞 07:50, 교직원공제회관 08:00, 예술회관후문 08:10, 동광주진입로승강장 08:20 \*다음카페 광주청목산악회 ☎ 010 8612 4504, 010 3000 1134

1월 26일(토)  
▲광주호산회 1월 26일(토) 해파랑길20코스, 05:30 풍암동 롯데마트 7주차장출발, 06:00 롯데백화점, 06:15 예술회관후문 \*다음카페 광주호산회 ☎ 010 4621 2166, 010 6702 9796

1월 27일(일)  
▲광주자연보전단사회 1월 27일(일) 전북 완주군 대둔산(879m), 영주체육관 06:40, 무등경기장 07:00, 동광주출플러스 07:20 \*다음카페 광주자연보전단사

☎ 010 3666 3291, 010 2663 0304

1월 30일(수)  
▲광주청목산악회 1월 30일(수) 전남 해남 두륜산(703m), 백운로타리타이어뱅크앞 07:50, 교직원공제회관 08:00, 예술회관후문 08:10, 동광주진입로승강장 08:20 \*다음카페 광주청목산악회 ☎ 010 8612 4504, 010 3000 1134

**부동산 매매**  
전남 영광군 영산면 송림리 258번지  
·대 지 645㎡  
·매매가 1700만원(절충)  
·소유자 010-4243-3858

**분할합병공고**  
(채권자 이익 및 주권재출 공고)  
주식회사 성보생명건설(이하 '갑'이라 함)과 주식회사 케이전기(이하 '을'이라 함)은 2019년 01월 08일 개최된 각 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갑'의 소량사채공시일 부분을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분을 '을'에게 합병하고, '갑'과 '을'은 존속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분할 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 게재일 익일부터 1개월 내에 관계 회사로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또한 각 회사의 주주는 해당 회사에 주권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이에 공고함.  
2019년 01월 08일  
갑 상 호 : 주식회사 성보생명건설  
소재지 : 전남남도 순천시 왕지4길 7, 5층(왕지동)  
대표이사 : 왕 태 형  
을 상 호 : 주식회사 케이전기  
소재지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발동길 13  
대표이사 : 김 병 진

## 즐거운 문화 산책

**LOTTE CINEMA | 총정리**

1관 아쿠아맨  
2관 PMC: 더 벵커  
3관 범블비  
4관 아쿠아맨  
5관 주먹왕 랄프 2  
6관 PMC: 더 벵커  
9관 스윙키즈  
7관 씨네케틀 언니, 마약왕  
8관 씨네케틀 보헤미안 랍서디, 썩은 못말려, 도아락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광주문화예술회관 공연안내**

광주시립교향악단  
2019 신년음악회  
THE ROSE

2019. 1. 24(목) 7:30pm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문의 (062)613-8353

광주문화예술회관 기획전시  
목가구와 달항아리

2019. 2. 21. ~ 3. 24  
광주문화예술회관 갤러리